

【특별기고】

다문화주의 접근법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군용동물(軍用動物) 위령비와 일본 육군—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

┃ 차 례 ┃

- I. 시작하며: 다문화주의 접근과 '동물의 권리'론의 관계
- II. 전쟁 시기 군용동물의 제도적 처우
- III. 전후 동물 위령의 두 가지 조류
- IV. 맺으며

국문초록

다문화주의와 '동물의 권리'의 관계의 진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본 보고서의 목적은 '동물의 권리'를 이론적으로 파헤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물의 권리'가 유사하게 존중되었던 시대, 즉 전쟁 하에서 동물과 인간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제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권리를 억압하는 한편, 마치 이러한 권리를 용인한 것처럼 선전하는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서는 전시하의 제국 일본 및 만주국에서 민족의 '독립'이나 '오족협화' 등 유사 다문화주의가 표방되는 가운데, 전쟁에 동원된 군마, 군견, 군용견, 군용비둘기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보장된 것인지, 아니면 소외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역사학에서 간과되어 왔던 '동물의 권리'론에 대해 우선 여러 사실들을 파헤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 문호를 개방하고자 한다.

주제어: 동물의 권리, 군용 동물, 일본 군대, 전쟁, 기억, 기념, 다문화주의

* 일본 교토(京都)대학교 동남아시아지역연구연구소 교수.

I. 시작하며: 다문화주의 접근과 ‘동물의 권리’론의 관계

다문화주의는 인종, 민족, 이민(移民), 성(性)에 대한 다양성 존중, 사회적 포용, 그리고 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이념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교육, 정책,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다. 반면 최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정책의 등장과 거의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한 ‘동물의 권리’, ‘종의 차별’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심화되고 실천되어 왔을까? 현대의 ‘동물보호관리법’의 대부분은 루스 해리슨이 주장한 ‘동물의 복지(Animal Welfare)’론에 근거하여 동물의 도축을 용인하면서도 동물 양육 환경의 보전을 요구하고, 고통과 공포를 경감시키는 한편, 공장생산적 축산과 동물실험, 애완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요구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한편 1970년대 이후,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동물의 해방’²⁾이나 미국 철학자 톰 리건이 제창하는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³⁾에 대한 논의는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s)에 대해 법적 ‘인격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이미 유럽연합(EU)과 대만, 남미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제한적이거나 확산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4년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거기서는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동물이 헌법에 따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윌 킴리카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설명할 여지는 없지만, 킴리카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기존처럼 도덕론, 복지주의, 생태중심주의 등의 논의가 아니라, 다문화주의에 대

1) Ruth Harrison, 1964, *Animal Machines*, Stuart(Vincent) & J.M.Watkins Ltd.

2) Peter Singer, 1975,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s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HarperCollins.

3) Tom Regan, 1986,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해 전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인권이라는 정치적 틀 안에서 파악하려는 현실적 노선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⁴⁾

그렇지만 이 글의 목적은 '동물의 권리'를 이론적으로 파헤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물의 권리'가 유사하게 존중되었던 시대, 즉 전쟁 하에서 동물과 인간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제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왜냐하면 전쟁은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권리를 억압하는 한편, 마치 이러한 권리가 용인되었다는 듯한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전시하 제국 일본과 만주국에서 민족의 '독립'과 '오족협화' 등 의사(擬似)-다문화주의가 표방되는 가운데 전쟁에 동원된 군용동물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보장되었는지, 아니면 소외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학에서 간과되어 온 '동물의 권리'론에 대하여 우선 제반 사실을 발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전쟁 시기 군용동물의 제도적 처우

일본군의 주요한 군용동물은 말, 비둘기, 개이다. 당시 육군에서는 수송 순위 등에서 “군인, 군마, 군견, 군비둘기, 군속”이라는 속요(俗語)가 있을 정도로⁵⁾ 군속과 같은 민간인 징용자보다 군용동물이 우선시되었다고 한다. 군용동물의 활약 무대는 척후(감사-정찰)-순찰, 전령(통신-연락), 보초(경계-보초), 격투(格闘), 구호(救護), 운반뿐만은 아니었다. 제대한 공로 군마(軍馬) 중에는 사역(事務)이나 식용, 피혁 이용 등에 쓰이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1933년 발족한 재단법인 군마애호협회처

4) 스ー Donaldson, ウィル・キムリッカ, 2016, 『人と動物の政治共同体 - 動物の権利の政治理論』, 尚文社. 원저(原著)는, Sue Donaldson and Will Kymlicka, 2013,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이다. 또, 김릿카의 다원주의에 대한 사유 방식은 ウィル・キムリッカ, 2018, 『多文化主義のゆくえ: 国際化をめぐる苦闘』, 法政大学出版局(원저는 2017)을 아울러 참조 바란다.

5) 秦郁彦 編, 2005, 『日本陸海軍総合事典』(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725쪽.

럼 민간 독지가에게 맡겨서 애호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⁶⁾

군용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활용된 것은 군마였는데, 일청·일러전쟁에서 한반도와 만주 남부에서 활용되었다. 반면 군견, 군용 비둘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의 전황을 분석한 뒤에 1920년대 이후 활용이 시도되었으며, 30년대 만주사변 당시 실전에 동원되었다. 실제로 1935년도 육군의 만주사변 비용 가운데 말 한 마리 비용의 0.1% 상당이 군용 비둘기 비용으로, 0.2% 남짓이 군견 비용으로 계상(計上)되어 있었다.⁷⁾ 이후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접어들면서 동원되는 동물의 숫자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는 메이지(明治)시대 이래 일본의 전쟁에서 소모된 군마의 수치를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러일전쟁은 30,467마리, 1차 세계대전기 일독(日獨)전쟁은 1,638마리, 시베리아사변은 2,437마리, 제남(濟南)사변은 97마리, 만주사변은 2,434마리, 중일전쟁 발발 5개월 동안 만도 11,045마리의 군마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통계가 남아 있는데,⁸⁾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약 116,000마리가 전사했다고 한다.⁹⁾ 또한 군용 비둘기에 대해서는 1939년 초까지 3만 5천 마리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⁰⁾ 그렇다면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약 8년간 (추정치지만) 약 11만 6천 마리의 군마(이 중 일본에서 가져간 것은 약 65,000마리, 중국에서 현지 조달한 것은 약 59,000마리), 5만~10만 마리의 군견,¹¹⁾ 6만 마리 정도의 군용비둘기들이 전장에 나갔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패전과 함께 전장에 버려진 동물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아직도 일본 패전 후의 장병과 민간인의 귀환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다.¹²⁾

6) 日本文化中央聯盟 編刊, 1943,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 日本文化中央聯盟, 45~46쪽.

7) 齋藤直幹, 『財政中心国防論』, 言海書房, 1935, 181쪽.

8) 『讀賣新聞』 第二夕刊, 1937.12.26.

9) 東海林次男, 2017, 『日本の戦争と動物たち』 1, 汐文社, 39쪽.

10)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9.3.6.

11) 東海林次男, 前掲書, 38~39쪽.

12) 패전 당시 일본에 송환된 군인, 군속, 민간인이 함께 약 660만 명에 달했다는 점을 상정해보면(『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15.9.23), 군용동물에 대한 송환이 단 1마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 군용동물의 '인격(人格)'화

전쟁이나 지역분쟁이 일어나고 군용동물의 희생이 늘어남에 따라 위령비 설치나 위령제 개최도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병사와 마찬가지로 군용동물에게도 '인격'에 준하는 자격과 조건이 부여되었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징병검사에 해당하는 '징발검사'의 실시, 출정 축하, 군사훈련, 군공훈장(軍功賞) 수여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것들의 제도화 과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징발검사 러일전쟁이 끝난 후 1906년부터 산마(産馬) 개량 증식 30년 계획(제1차 마정(馬政) 계획)이 시작되어 만주의 우량마 1만 마리가 수입되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토카치(十勝)에서는 도내(道內) 뿐만 아니라 혼슈(本州)와 만주에서도 말을 모아 약 20곳에 달하는 말 시장이 열렸고 육군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 이 계획이 끝나고, 1936년 4월부터 제2차 마정계획이 착수되지만, 2년 후에는 육군의 요청에 따라 이 계획에 변경이 가해졌다. 육군으로서는 말의 생산보다 그 활용을 중시하고, 특히 전장에 필요한 승마, 만마(挽馬, 수레용말), 전열태마(戰列馱馬, 짐 나르는 말)의 육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계획의 변경 후 1939년에는 육군성 주도 아래 마정 관계 3법이라 불리는 '경마법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종마(種馬)통제법', '군마자원보호법'이 제정되어 매년 민간의 말을 검정(檢定)하여 군용보호마로 지정하고 나아가 '강제 징용'까지 염두에 둔 이른바 말의 '국가총동원법'이라 할 수 있는 법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이 가운데 '군마자원보호법'에 따라 1939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기 시작했다. 말의 검사는 먼저 키, 가슴(겨드랑이), 다리 둘레 등의 크기를 측정하고, 다음으로 말의 계통과 종별, 발육 상태, 눈 등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달리기 검사를 통해서 검사관이 합격 여부를 판정했다. 정부는 매년 1회 2세(歲) 말을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실시하여 여기에 합격한 말을 3세가 되면 '군용마'로 지정하고, 동시에 각 지방의 마적부에 기재하는 동시에, 사육자에게 매년 50엔의 사육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재향(在郷) 군마=군용마로 대기하고 필요에 따라 육군 군마 보충부가 구입함으로써 '군마'로 인정받게 되었다.¹³⁾

군견의 경우, 1932년 설립된 사단법인 제국군용견협회가 육군의 후원 아래 민간에서 군용견의 증식, 육성에 종사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서 검사에 임했다. 제 64회 제국의회에서 통과된 1933년도 예산에 따라 군견의 정비 충실과 강화를 둘러싼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이듬해 2월 ‘군견관리규칙’의 공포를 보게 된다. 그 결과, 1934년 6월, 제국 군용견협회에서는 훈련시험 가규정과 종견(種犬) 선정 가규정이 가결되었다. 전자의 시험 과목은 취각(臭覺)작업, 복종성, 숙련성, 순응성(馴致), 예민성, 용감성, 수중(水中)작업 등에 걸쳐 있다.¹⁴⁾ 이것에 합격하면 재향(在郷)군견 또는 군용보호견으로 인정받아,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 등지에서는 축견세(畜犬稅)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¹⁵⁾ 이후 육군 군견구매회의 심사를 거쳐 비로소 ‘군견’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군용비둘기도 검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말이나 개와 달리, 검사는 군의 전문검사관이 실시했다. 예를 들어, 1937년 6월 16일, 관동 일대의 해군 지원용 전서구(傳書鳩) 검사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사 옥상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요코스카(横須賀) 방위대가 민간에서 매입한 군용 전서구로 도쿄 사이타마(埼玉), 군마(群馬) 지역의 애구가(愛鳩家)가 출품한 생후 3, 4개월 된 새끼비둘기(雛鳩) 300마리가 검사의 대상이 되었다. 방위대의 전문시험관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가운데 80마리가 합격, 1마리당 4엔으로 구입되어 요코스카로 향했다고 보도되었다.¹⁶⁾

[출정축해 인간이 출정할 때 행해지던 출정 축하식이나 퍼레이드가 군용동물이 출정할 때에도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만주사변 이듬해 1월, 전서구 보충대 약 400마리가 평텐(奉天)의 독립수비대로 보내질 때 도쿄역 플랫폼에서는 “축(祝) 출정 전서구(傳書鳩) 도쿄비둘기구락부”라는 현수막을

13) 常磐学人, 「馬政革新の二大法案—興亞議會展—酪農統制法とは何か」, 『文化農報』 3月号, 1939. 6頁.; 『讀賣新聞』 夕刊, 1939.4.7.;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9.7.3. 및 1939.8.6.

14) 「公報」, 『軍用犬』 第3卷 第8号, 1934.5. 10~11쪽.

15) 『東京朝日新聞』 朝刊, 1940.12.29.

16)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7.6.17.

내걸고 배용용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¹⁷⁾ 이러한 행사는 중일 전쟁 발발 이후 각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38년 10월 홋카이도 토카치에서는 말이 출정할 때 ‘붉은 밥(赤飯)’을 지어 축하하고 서낭신(鎮守様)께 가족이 총출동하여 참배하면서 무운장구를 기원하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정거장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며 배운한 사례도 있었다.¹⁸⁾ 또한 1939년 5월, ‘노몬한사건’ 직전 즈음 아사히신문사가 홋카이도 오타루(小樽)에서 어린이용 뉴스영화(아사히 고도모그래프[Kodomograph]) ‘군용견의 출정’ 장면이 촬영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¹⁹⁾

[군공장(軍功章)] 만주사변에서 군용견 전서구를 사용해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육군성 군정과와 은상과(恩賞課) 등은 군마, 군견, 군용비둘기에게 군공장(軍功章, 이하 군공로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1933년 6월 1일부터 ‘군용동물 표창 내규’가 시행되어 군마, 군견, 군용비둘기 모두 공훈(功績)의 정도에 따라 갑공로메달(금치(金鷄)훈장 상당), 을공로메달(옥일(旭)미장 상당), 병공로메달(서보[瑞宝]장 상당)이 새겨진 목걸이(군마, 군견), 금환(金環, 비둘기)이 군공로메달로 수여되었다.²⁰⁾

1933년 7월, 최초로 군공로상을 받은 군견은 만주사변 발발 직후 북대영(北大營) 돌격에서 전사한 곤고(金剛)와 나치(那智)였다 이 군견들은 펡텐의 독립수비대 제2대대에서 보병 대위 이타쿠라 이타루(板倉至)가 양육하던 개로 그 죽음의 모습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영웅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²¹⁾

또한 군용비둘기에 대한 최초의 군공로메달은 상하이 전투에서 전사한 제9사단 소속 군용 비둘기인 제167호(갑공로메달), 제16호(을공로메달)에게 같은 해 11월에

17) 『東京朝日新聞』 夕刊, 1932.1.26.

18)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8.7.31.

19) 아사히(朝日)미디어프로덕션이 작성하고 있는 「1940아카이브: 그때 일본은~」에서는, 1939년 5월에 「아사히아동클럽」으로 촬영된 군견의 출정식 모습이 도드라져 보인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MC55VHQM5IPE01N.html>)

20) 長谷川正道, 1934, 『国民参考兵器大観 附其の戦法』, 宝文館, 권두 사진.

21) 『東京朝日新聞』 夕刊, 1933.7.6.

수여되었다.²²⁾ 군마 표창은 1942년 4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갑공로메달 384마리, 을공로메달 832마리, 병공로메달 300마리를 합하여 총 1,516마리에게 수여되었는바, 군용동물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숫자였다.²³⁾

[군사훈련] 군견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33년 치바(千葉)현에 육군보병학교군견양성소, 같은 해 12월에는 만주 남부 랴오양(遼陽)에 관동군견양성소가 설치되어 훈련이 이루어졌다. 또한 만철(滿鐵)도 1931년 다롄(大連) 슈수이시(周水子)에 만철 경계견(警戒犬) 훈련소, 1934년 평톈(奉天)에 철로총국 경비견 훈련소를 설치했다.²⁴⁾ 또한 군견 이외의 재향견(在郷犬)에 대해서는 1933년 9월 사단법인 제국군용견협회가 도쿄시 교외 아카바네(赤羽)에 제1군용견양성소를 개설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군용보호마로 인정받은 말들에 대해서는 일반 훈련 외에도 축산조합연합회, 현(縣)구역 축산조합, 지정법인이 1부현(府県) 1개소에서 연 2회씩 매회 4일 이내의 훈련마 경기(기존의 지방 경마)가 이루어졌다.²⁵⁾

비둘기 훈련소로는 1928년 육군 군용비둘기조사위원회 사무소를 개조하여 군용비둘기 육성소가 설치되었다. 만주국 성립 후에는 수도 신경에 군용 비둘기 양성소, 공주령에 관동군 군용비둘기 육성소가 설치된 것 외에도, 만철도 랴오둥(遼東)전서구연맹, 만철사원구우회(鳩友會) 등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일만(日滿) 각지에서 군용비둘기 육성 방법의 보급, 비둘기애호가 증가에 힘쓰고 있었다.²⁶⁾

[위령비 건립, 위령제 개최] 전후 전몰군마위령제 연락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세워진 동물 위령비 대부분이 만주사변(1931) 이후 세워진 것으로 밝

22) 『東京朝日新聞』朝刊, 1933.11.15.

23) 『続日本馬政史』1, 社団法人農山漁村文化協会, 1963, 742쪽.

24) 「滿洲に於ける軍犬事情」, 『軍用犬』第7卷 第1号, 1938, 68쪽.

25) 常磐学人, 前掲書, 6~7쪽. 『讀賣新聞』夕刊, 1939.4.7.

26) 永代静雄, 「滿・蒙・華の鳩人に言ふ」, 『普鳩』第87号, 1942, 1쪽.

혀졌다. 이 중 제사를 지내지 않고 버려지거나, 전쟁이 끝난 직후 GHQ의 철거령을 피하거나, 또는 자연재해를 피해 살아남은 57기의 위령비 건립자는, 사단 5개(아사히가와(旭川) 제7사단, 센다이(仙台) 제2사단 2기(基), 나고야(名古屋) 제3사단, 젠쓰지(善通寺) 제11사단), 학교 7개(사관학교 3, 기병학교 1, 야전포병학교 1, 수의학교 1, 구마모토(熊本) 예비사관학교 1), 연대 등 부대 16기, 군마보충부 각 지부 10기, 민간인 19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⁷⁾



[그림 1] 1939년 6월, 구 나고야성에 세워진 군마군견군비둘기 위령비

군용동물 위령비 건립과 함께 위령제도 거행되고 있다. 만주사변 2주년을 기념하여 1933년 기병 모리오카 모리시게(森岡守成) 대장을 회장으로 하는 군용동물위령회가 발족하여²⁸⁾ 9월에 동회(同會) 주최로 ‘군용동물 위령의 밤’이 히비야음악당에서 개최되었다.²⁹⁾ 또한 일중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10월에는 제국마필협회, 일본경마협회, 일본승마협회 공동주최, 육군성, 농림성 후원으로 전국 각 부

27) 戦没軍馬慰靈祭連絡協議会, 「戦没軍馬鎮魂録余話 愛馬袋③」, 『偕行』平成4年 6月号, 1992, 50~51쪽.

28) 木原清, 「軍用動物慰靈碑に就いて」, 『軍用犬』第7卷 第2号, 1938, 68쪽.

29) 『東京朝日新聞』朝刊, 1933.9.17.

현(府)에서 일제히 참여하는 '지나사변 군마제'가 히비야공원에서 개최되었다.³⁰⁾ 이 군마제는 이듬해 이후에도 계속 열렸으나,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는 '대동아전쟁 군마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37년 11월 21일에는 우에노공원 동물원 내 위령비 앞에서 중일전쟁에서 사망한 군마, 군견, 전서구 등의 위령제가 열렸다.³¹⁾ 이후 매년 우에노동물원에서는 전몰군용동물위령제를 포함한 군용동물 감사회가 개최되고 있다.³²⁾ 1942년 10월 군마제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 2주년을 기념하여 일본마사회 주최, 육군성, 농림성, 내무성, 문부성, 후생성, 정보국, 도쿄부, 도쿄시, 다이세이익찬회(大政翼賛會)의 후원 아래 우에노동물원 정문 앞 광장에서 대규모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또한, 1938년 12월 26일 요요기연병장 북서쪽 모퉁이에서 귀족의원 마루야마 츠루키치(丸山鶴吉)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용동물위령회에 의해 군마, 군비둘기, 군견 45,000여 마리를 모신 위령제가 개최됨과 동시에 군용동물위령비가 세워졌다. 이후 요요기연병장에서도 육군성 마정과(馬政課)와 군용동물위령회에 의한 위령제가 개최되기에 이른다.³⁴⁾

이처럼 관동지방에서는 군용동물 위령제에 대해 히비야공원, 우에노동물원, 요요기연병장이 거점이 되었다. 만주에서는 성충비(誠忠碑)가 설치된 신징(新京) 서(西)공원이 만주사변에서 전사한 장병 및 군용동물에 대한 위령의 거점이 되었다.³⁵⁾

30) 『東京朝日新聞』朝刊, 1938.8.21.

31) 『東京朝日新聞』夕刊, 1937.11.22.

32) 『東京朝日新聞』夕刊, 1940.3.10.

33) 『東京朝日新聞』朝刊, 1942.10.20.

34) 『讀賣新聞』第二夕刊, 1937.12.26. 『東京朝日新聞』夕刊, 1937.12.27. 요요기(代々木)훈련장에 있던 위령비는, 1951년경 경찰관 초소 부지 등의 문제로 인해 철거되었다.(『日本本馬政史』統·第三, 財団法人神翁顕彰会, 1963, 17쪽).

35) 『滿洲事變の真相』(新版), 大正写真工芸所, 1931, 49쪽. 「雜報」, 『陸軍獸医団報』第287号, 1933, 460쪽.

(2) 군용동물의 통제화

1938년 5월에 시행된 국가총동원법 제8조에 따라 전시하의 정부는 칙령으로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 사업의 사업주-단체에 대해 해당 사업의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회사의 설립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 축산업 등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존 단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통제단체가 재조직화되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총동원 체제하였다고는 해도 군이나 정부에 의한 통제단체가 기존의 민간단체와 반드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모든 민간단체를 해체시켰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일본마사회] 러일전쟁이 끝난 후 1906년 5월부터 내각총리대신 관리하에 설치된 마정국(馬政局)에 의해 산마(産馬)개량증식 30년 계획이 착수되었다는 것이 언급했다. 이 시기 말(馬)과 관련된 “국방의 충실과, 산업의 발전과, 농촌의 진흥 등”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마사(馬事)의 통일이 기획되어 1926년 7월 말의 생산, 육성, 이용에 관련된 각 단체를 통합, 통제하기 위해 “말의 개량 발달 및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그 이용 등의 사업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제국마필협회가 발족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일본산마회, 제국경마협회, 일본승마협회 등이 해산된다.³⁶⁾ 이어 1936년부터의 마정(馬政) 제2차 계획에서는 개척과 군사적 침략을 위해 군마를 중국 대륙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반전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1923년 한 차례 폐지되었던 마정국도 1936년 7월 농림부 외무국으로 부활한다. 또한 국가총동원법 제18조에 따라 마사(馬事)에 관한 사업의 통제를 촉진하기 위해, 1941년 12월 22일에 사단법인 제국마필협회, 군용보호마훈련중앙회, 재단법인 대일본기도회(騎道會) 등이 해산되고 새로운 일원적 통제조직으로 ‘일본마사회’가 발족하여, 이 시점에서 마정(馬政) 단체의 통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³⁷⁾

36) 社団法人帝國馬匹協會, 『帝國馬匹協會創立總會報告』, 1927, 12, 22, 42쪽.

37) 山田仁市 編, 1943, 『社団法人帝國馬匹協會業績概要』, 日本馬事會, 152~154쪽.

[제국군용견협회] 군견의 활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국내에 독일산 셰퍼드가 도입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육군 보병학교 내에 군견양성소가 설치되었고, 셰퍼드를 중심으로 도베르만, 에어데일테리어 등 3종만 군용견으로 육성되기 시작했다. 아키타견(秋田犬), 도사견(土佐犬)과 같은 일본견이 아닌 서양견만이 군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28년 민간단체로 발족한 일본 셰퍼드견구락부가 군과 경찰에 셰퍼드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민간으로부터의 공급 경로를 통해 육성된 육군의 군용견은 만주사변 이후에도 전령견과 경비견으로 전선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1932년 9월 사단법인 제국군용견협회가 새롭게 발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정관 제2조에는 군용견, 경찰견, 가정견의 자원을 충실하게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본 협회는 군용견 및 근무견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여 그 개량과 발달을 촉진하고, 번식 훈련의 연구와 지도를 수행하며, 군견 및 근무견의 증식을 조성(助成)하고 축견(畜犬)사상의 보급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³⁸⁾ 이 협회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한반도에는 조선(경성)지부 외에 인천, 대전, 광주, 경북, 호남, 군산, 평양, 서선(西鮮), 북선(北鮮), 함남, 함흥, 원산 각 분회 타이완(臺灣)에는 타이베이(臺北), 타이난(臺南), 남대만, 북대만, 북대만 각 지부, 중국에는 칭다오(靑島), 광둥(廣東), 시먼(石門)시 각 지부를 설치했다.³⁹⁾

또한 이듬해인 1933년 8월에는 제국군견협회와 자매단체인 만주군용견협회 창립총회가 다롄(大連)에서 개최되었다. 외지의 군용견협회는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회장에는 육군 중장 다카야나기 야스다로(高柳保太郎)가 취임했다. 이미 만철 등에서도 근무견으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평텐의 독립수비대 및 관동군에서도 군견을 정비하게 되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본 협회는 군용견 및 근무견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여 그 개량 발달을 촉진하고, 번식훈련의 연구와 지도를 수행하며, 군견 및 근무견의 증식을 조성하고, 축견 사상의 보급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었다.⁴⁰⁾ 또한 같은 해 12월 24일에는 관동군

38) 「雜報」, 『陸軍獣医団報』 第281号, 1932, 74쪽.

39) 「十周年日誌」, 『軍用犬』 第10卷第9号, 1941, 30~81쪽.

군견양성소도 개소했다.

그러나 육군의 의향을 접수한 제국군견협회가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민간 주도의 일본 세퍼드견구락부(훗날 일본세퍼드견연구회, 일본세퍼드견협회)는 해산되지 않았으며, 민관(民官)의 관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립하게 된다.⁴¹⁾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 1930년 12월 7일 나카노의 군용비둘기조사사무소에서 일본전서구협회가 설립되어, 1938년 육군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었다.⁴²⁾ 1939년 3월부터 매년 일본전서구협회는 도쿄시가 주최하는 '군마와 함께 군용동물 감사주간'을 기념하여 우에노동물원에서 전서구위령제를 거행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일본전서구협회는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로 재편성되어 비둘기계의 통제기관이 되었다. 이 협회는 3,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협회의 목적과 사업은 "군용에 준하는 통신용 비둘기를 양성하고 그 보급과 발달을 도모하여 자원의 충실을 기하고 보국(報國)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일본 국방비둘기대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둘기통신망을 구성군(構成軍)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방통신을 실시한다", "일본 전국에서 군용비둘기의 '비둘기 호적(鳩籍)'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위해 협회 소정(所定)의 다리반지(脚環)를 제작, 배포하여 회원의 사육 비둘기에 장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⁴³⁾

그러나 비둘기계에서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의 통제 사업은 전장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갈등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민간에서 결성된 중앙보구회(中央普鳩會)는 "대동아 요지에서 비둘기통신망을 건설"하기 위해 1942년 대동아전서구총연맹을 발족시켰으나, 이듬해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와의 분쟁이 법정 소송(재판 사태)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⁴⁴⁾

또한 1943년 11월 만주국 수도 신징(新京)에서 발족한 사단법인 대륙군용비둘

40) 「滿洲軍用犬協會の創立」, 『軍用犬』 第2卷 第10号, 1933, 66~67쪽.

41) 今川勲, 1996, 『犬の現代史』, 現代書館, 44~54쪽.

42) 日本文化中央聯盟 編刊, 1943,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版』, 44쪽.

43) 日本文化中央聯盟 編刊, 1943,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版』, 44쪽.

44) 「鈴木孝民對協會除名取消請求訴訟を繞る原被兩告の論爭點」, 『普鳩』 第97号, 1943, 9~12쪽.

기협회는 “만주에서 군용 적종(敵種) 비둘기의 증식, 소질의 향상과 더불어 그 실용화를 도모하고 ‘군용비둘기사상(軍鳩思想)’의 보급과 발달을 조성(助成)하여 군대와 경찰용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와의 연대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⁵⁾

Ⅲ. 전후 동물 위령의 두 가지 조류

(1) 야스쿠니신사의 위령비 봉납(奉納)을 계기로

현대 일본에서 전쟁과 동물의 상징적인 관계는 야스쿠니신사에 봉납된 전몰마 위령상, 비둘기영혼탑, 군견위령상이라는 동물 위령비에서 볼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전몰마(戰歿馬)위령상] 이 동상은 1958년 전몰마위령상봉납협찬회(1957년 창립)가 건립한 것이다. 이 협찬회는 1957년 4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전(前) 기병장교 기도 순죠(城戸俊三)가 발기인이 되었으며, 전(前) 귀족원 자작의원으로 군용보호마 훈련중앙회 부회장이었던 니시오 다다미치(西尾忠方)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기도(城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기병장교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마술(馬術)팀 주장으로 활약했으며, 전쟁 중에는 육군 기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전쟁 후에는 황궁 내 승마구락부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 그들이 설립한 협찬회의 목적은 전쟁으로 사망한 수십만 마리의 군마를 위령하는 것은 물론, 그 상징으로 야스쿠니신사에 말 조각상을 봉납하는 것에 있었다. 말조각 작가로 알려진 이토 쿠니오(伊藤國男)의 봉납 희망에 손을 들어 주어 이듬해에 이 동상이 봉납되기에

45) 『戦時体制下に於ける事業及人物』, 東京電報通信社, 1944, 963쪽.

이르렀다.

한편, 위령제는 훨씬 늦은 1978년에 시작된다. 이곳은 전 기병연대 소속이었던 사람들의 모임인 모에기회(萌黄会)(기병의 깃발이 맹황색(萌黄色)가 운영했지만⁴⁶⁾ 불과 5년 만에 일단 중단된다. 그래서 1985년 히라야마 이치로(平山一郎)(육군대학졸업, 관동흥업이사장, 도쿄승마구락부 회원가 기도 순조(城戸俊三), 가이코샤(偕行社) 회장인 다케다 츠네테(武田恒徳), 구(旧) 기병대 장교인난 키요시(印南清), 모에기회 후견인 시라이 마사타츠(白井正辰) 등의 뜻을 받아들여 위령제를 부활시키게 되었다.⁴⁷⁾ 그러나 구(旧) 군인들의 고품화로 인해 지금은 야스쿠니신사가 대신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그림 2]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전물마 위령상, 비둘기영혼탑, 군견위령상

[비둘기영혼탑(鳩魂塔)] 다음으로 건립된 비둘기영혼탑은 1982년 봉찬회와 일본 비둘기경주협회에 의해 복원되어 야스쿠니신사에 봉납되었다. 그 원류는 1929년 3월 궁내성 어용계(御用係)인 도쿠가와 요시쿠미(徳川義郷)가 주창자가 되어 민간의 기부금을 모아 육군 나카노전신대(中野電信隊)의 군용비둘기조사회(調査會) 앞마당에 건립한 청동제 비둘기 영혼비였다.⁴⁸⁾ 10년 후 육군 전신학교가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도쿄시 관할이 되었으며 비석은 우에노동물원 내로 옮겨졌다.⁴⁹⁾ 전후에도 매년 5월에 일본전서구협회, 요미우리(讀賣)비둘기

46) 『東京朝日新聞』 夕刊, 1988.12.7.

47) 『讀賣新聞』 朝刊, 1985.4.4.

48) 『東京朝日新聞』 朝刊, 1929.3.23.

49)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9.3.4.

회, 우에노동물원 공동주최로 전서구(伝書バト[鳩])위령제가 개최되어 전쟁뿐만 아니라 보도, 의료, 경주(競走) 등으로 죽어간 전서구의 명복을 빌었다.⁵⁰⁾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방치되어 노후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1981년 4월 비둘기경주 협회의 고바야시 고자에몬(小林小左衛門)이 재건봉찬회 발기인으로, 우에노동물원 원장 고가 다다미치(古賀忠道)가 초대회장으로 참여하여 재건운동이 진행됨으로써 ‘비둘기영혼탑’의 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⁵¹⁾

[군견위령상] 이 동상은 니가타(新潟) 출신의 주금(鑄金)공예 작가 이치하시 토시오(市橋敏雄)가 제작하여 1992년 3월 20일에 설치되었다. 이 동상 건립의 원류에는 후술할 동물에 대한 군공상(軍功賞) 수여에 따른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1933년 7월 7일 가나가와현 즈시(逗子)시에 있는 연명사(延命寺) 경내에 설치된 평텐(奉天) 독립수비 보병 제2대대 이타쿠라 지(板倉至) 대위의 애견 줄리(ジュリー)의 위령비,⁵²⁾ 다른 하나는 1939년 5월 만주국 남부 랴오양(遼陽) 교외에 세워진 군견 위령비이다. 후자는 관동군 군견양성소(훗날 만주 제501부대, 제13990부대)의 다카나미 긴지(高浪金治) 소장 등이 옛 러시아군 여단 사령부 터에 세운 위령비이다.⁵³⁾ 이 육성소는 1941년 10월에 개칭되어 패전 직전까지 운영되었으나, 이 부대 소속의 많은 장병들이 시베리아에 억류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이 1948년 귀국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1943년 금속류 회수령에 의해 철거된 ‘줄리’의 위령비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또한 랴오양 교외의 군견위령비를 대신할 기념비 설치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 관동군군견양성소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1963년 즈시시에 동물애호비가 재건되었고, 그로부터 30여 년 후인 1992년 3월 20일 동물애호의 날에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에,⁵⁴⁾ 그리고 2020년 4월 니가타현 호국신사(護國神社)에 전물견위령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50) 『讀賣新聞』 中央版, 1968.5.12.

51) 『レース鳩』 1981년10月号.

52) 『東京朝日新聞』 夕刊, 1933.7.6.; 同, 夕刊, 1933.7.8.

53) 『滿洲日日新聞』, 1939.5.13.

54) 「委員会報告」, 『偕行』 497, 1992년 5月号, 2쪽.



[그림 3] 전 관동군 군견양성소 직원이 니가타현 호국신사에 세운 전몰견 위령비

이러한 야스쿠니신사의 전몰마위령상 설치운동을 계기로, 전후 일본 각지에서 군용동물의 위령비가 건립되거나 재건되고 있다.⁵⁵⁾ 전몰군마위령제 연락협회가 편찬한 『전몰군마진혼제』(가이코샤[偕行社], 1992)를 보면 전후에 건립된 군마위령비 51기의 건립자는 사단·여단 4기 보병·기병·포병·공병·치중(輜重)-병참부대 35기, 야전병원 1기, 수의학교 1기, 위령비건립회 1기, 현창회(顯彰會) 1기, 마사(馬事)진흥회 1기, 마술(馬術)연맹 1기, 신사(神社)봉찬회 1기, 개인 4기가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군용동물의 이름이 여러 개 새겨져 있는 것은 평텐의 독립수비대 보병 제2대대회(大隊會)의 ‘군마견구(軍馬犬鳩)공양탑’(센다이)을 비롯하여 히노키(檜) 제68사단(오사카), 보병 제34연대(시즈오카), 보병 제108연대(미카와[三河], 오사카), 보병 제120연대(후쿠치야마[福知山]/말과 비둘기만), 보병 제216연대(오사카), 보병

55) 『讀賣新聞』 朝刊, 1985.4.4. 군마 위령상은, 1962년 8월 니가타현(新潟県) 호국신사(護国神社, 1979년 12월 재건), 1982년 7월 니가타현 조에즈시(上越市), 1986년 히코네(彦根)의 호국신사(護国神社) 등에 제각각 건립되었다(戰没軍馬慰靈祭連絡協議會, 「戰没軍馬鎮魂録余話 愛馬袋 ⑤」, 『偕行』 平成4年 8月号, 1992, 39~41쪽).

제217연대(오사카), 제34사단 통신대(오사카/말과 비둘기만)의 위령비이다.⁵⁶ 또한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으로서는 2015년 후쿠이(福井)현 특공현창회가 건립한 군마·군견·군비둘기의 비석이 가장 최신의 위령비라고 생각된다.

(2) 평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전우회에 의한 운동과는 별개로 1960년 우에노공원에서 전후 최초의 동물위령제가 개최되었다. 전쟁 중에 우에노동물원에서 약물로 죽임을 당한 동물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오늘날에는 이 행사가 훨씬 잘 알려져 있다.⁵⁷ 또한, 1988년 홋카이도 토카치 혼베츠초(本別町)에서는 센비리(仙美里)역의 전(前) 역장이었던 모리 히로시(森弘)가 세운 '진혼·군마지비(鎮魂·軍馬之碑)'처럼 명백히 평화(反戰)를 염원하는 비석도 있다.⁵⁸

최근에는 전쟁과 동물의 관계에도 관심이 높아져 사진전도 개최되고 있다. 예컨대 쇼와관(昭和館)의 특별기획전 '전중·전후를 함께 한 동물들'(2008년 7~8월),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전시 '전송(電送)과 동물'(2012년 11월~2013년 2월), 나가사키평화박물관 기획전 '전쟁에 사용된 말들'(2014년 12월~2015년 1월),⁵⁹ 홋카이도 혼베츠초 역사민속자료관 기획전 '전쟁에 나간 말들'(2017년 7~8월),⁶⁰ 평화아이치(愛知) 기획전 '전쟁과동물들전'(2019년10~11월), 아이치(愛知)현청 오츠바시(大津橋) 분실(分室) 1층에서 개최된 기획전 '군마의 역사를 찾아서'(2022년 11월 20~23년 3월) 등이 있다. 이러한 특색 있는 기획전은 전중·전후의 군용동물에 대한 위령이라기보다는, 전쟁에서 희생된 동물의 실태를 밝히고, 동물 애호 정신을 고취하는 작업에 가깝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진을 통해 전후세대에게 전쟁과 평화, 군용동물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56) 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 1992, 『戦没軍馬鎮魂録』, 偕行社, 24~35쪽.

57) 『東京朝日新聞』朝刊, 1960.4.6.

58) 『東京朝日新聞』夕刊, 1988.11.18.

59) 『毎日新聞』地方版/長崎, 2015.1.8.

60) 『毎日新聞』地方版/北海道, 2017.6.26.

IV. 맺으며

전시하의 일본과 만주에서 전쟁 동원을 위해 군용동물에 대해 가상(擬似)의 '인격화'가 이루어지고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에도, 결국 동물은 인간사회에 편리한(적합한) 도구로 취급되었을 따름이었다. 오히려 전황을 고려한 '동물의 학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군 장병, 군속들에 대한 처우로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즉, 인간의 처우와 동물의 취급은 시대와 함께 연쇄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여기서 다문화주의적 사고와 '동물의 권리'론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社団法人帝国馬匹協會, 『帝国馬匹協會創立總會報告』, 1927
『滿洲事變の真相』(新版, 大正写真工芸所, 1931
「雜報」, 『陸軍獸医団報』 第281号, 1932
「雜報」, 『陸軍獸医団報』 第287号, 1933
長谷川正道, 『国民参考兵器大観 附其の戦法』, 宝文館, 1934
齋藤直幹, 『財政中心国防論』, 言海書房, 1935
常磐学人, 「馬政革新の二大法案—興亜議會展—酪農統制法とは何か」, 『文化農報』 3月号, 1939
永代静雄, 「滿・蒙・華の鳩人に言ふ」, 『普鳩』 第87号, 1942
「鈴木孝民對協會除名取消請求訴訟を繞る原被兩告の論争點」, 『普鳩』 第97号, 1943
日本文化中央聯盟 編刊,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版』, 1943
山田仁市 編, 『社団法人帝国馬匹協會業績概要』, 日本馬事会, 1943
『戰時体制下に於ける事業及人物』, 東京電報通信社, 1944
『日本本馬政史』 続・第三, 財団法人神翁顕彰会, 1963
『続日本馬政史』 1, 社団法人農山漁村文化協會, 1963

『讀賣新聞』, 『毎日新聞』 地方版, 『東京朝日新聞』, 『滿洲日日新聞』, 『軍用犬』, 『レース鳩』

2. 논문 및 저서

- Ruth Harrison, *Animal Machines*, Stuart(Vincent) & J.M.Watkins Ltd, 1964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s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HarperCollins, 1975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스ー・드ナルドソン, ウィル・キムリッカ, 『人と動物の政治共同体 - 動物の権利の政治理論』, 尚文社, 2016
ウィル・キムリッカ, 『多文化主義のゆくえ: 国際化をめぐる苦闘』(法政大学出版局, 2018
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 「戦没軍馬鎮魂録余話 愛馬袋 ⑤」, 『偕行』 平成4年 8月号, 1992
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 『戦没軍馬鎮魂録』, 偕行社, 1992
今川勲, 『犬の現代史』, 現代書館, 1996
秦郁彦 編, 『日本陸海軍総合事典』(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2005
東海林次男, 『日本の戦争と動物たち』 1, 汐文社, 2017

■ Abstract ■

Multiculturalism and Animal Rights

: Reevaluating the Role of Military Animals in the Japanese Army

Toshihiko Kishi (Kyoto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animal rights, with a primary focus on military animals in the Japanese army during wartime. Unlike traditional analyses that mainly focus on the theoretical aspects of animal rights, this research aims to elucidat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ights under the conditions of war. It critically examines how wartime policies in imperial Japan and Manchukuo, which embraced multicultural ideals such as the “symbiotic coexistence of the five races,” informed the treatment of non-human agents such as horses, dogs, and pigeons. These animals were extensively mobilized in military efforts, yet their welfare often contradicted proclaimed multicultural and animal rights values. By integrating historical case studies with theoretical insights, this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academic discussion about the intersection of multiculturalism and animal rights, particularly under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f conflict. The findings challenge existing narratives and encourage a reassessment of how multicultural policies practically affect animal rights during times of war.

Key words: Animal rights, military animals, Japanese army, war ethics, multiculturalism, historical analysis